

회생절차 종결 시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는?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한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걸 알면서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실효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회생채권액이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했다면 일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적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차피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와 같이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B가 있다. 근로자 B는 2014년 6월경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등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야 A회사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2014년 8월 2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년 3월 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다.

먼저, 근로자 B가 가지고 있던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 원인을 갖춘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즉 그 위자료 청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미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근로자 B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회사도 위자료청구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B 역시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A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해서는 책임

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1) 회생채권자인 근로자 B가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에 관해 알 수 없었거나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판결).

위와 같이 도산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아직 변제가 다가오지 않았거나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의 회생 절차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아예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몰랐다면 예외에 해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를 알면서도 잘못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연관된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접어들다면 채권의 인정 여부는 추후에 다투더라도 일단 그 권리 내역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명동은 누구를 위하나



김서현
(산업부)

팬데믹과 엔데믹, 완전히 달라진 곳이 있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명동 일대 이른바 '명동거리'다.

팬데믹 3년, 명동은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 같았다. 하늘길이 닫히자 명동은 순식간에 유명도시가 됐다. 제일 먼저 마스크 팩 점포들이 문을 닫더니 곧 중심가 글로벌 브랜드 매장도 문을 닫았다. 수년 자라 지킨 명동의 대표 가게들도 못 버텼다. 빈 점포가 늘면서 외곽은 쓸쓸년스러워졌다. 명동에서 10여 분 걸으면 나오는 을지로는 그 사이 '힙지로'로 떠올라 코로나19 무서운 줄 몰랐는데 명동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명동은 엔데믹을 맞아, 정확히는 방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늘자 살아났다. 사막에서 몇 년간 비 오길 기다린 씨앗이 밤사이 내린 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순식간에 활기를 찾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고 사태니 뭐니 하며 명동은 제법 한산했는데 지금은 밤 11시에도 명동을 오가는 전 세계 각국 관광객들로 시끄럽다. 쿠시먼드앤드웨이크필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42.8%에 달했지만 올 1분기 공실률은 25%까지 떨어졌다. 1분기만에 17.4%p 줄어든 만큼 2분기에는 10% 미만인 전망 된다. 명실상부 관광의 메카다.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온 명동이지만 유통업계는 명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안정세가 아니라는 것. 한국을 찾는 가장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는 명동을 떠났다. 지난해 중국의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명동 일대는 마침내 귀환한 '큰손'의 은총이 가득할 거란 기대가 가득했다. 큰손들은 명동이 아닌 '성수동'으로

향했다. BC카드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9년 8월 셋째 주)과 비교해 서울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은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첫주에 908%, 다음 주는 1315%까지 치솟았다. 반면 명동은 허용 첫주 37%, 그 다음 주 45% 느는 데에 그쳤다.

명동의 위기는 지금이 아닐까? 외국인만 계속 들어온다면 명동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다. 한국인들은 명동을 찾지 않는다. 명동을 가도 다른 소풍 변화가 일대와 다른 점을 알 수가 없다. 다른 지역 보다 외국인들은 많지만 요즘 시대에 외국인을 보기 위해 명동을 가는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 한국인이 찾지 않는 한국 거리를 찾는 외국인. 그런데 그마저도 슬슬 떠나려는 듯 하다. 그런 데도 명동은 팬데믹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떠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7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니 외출은 다음날에. 48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자. 7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넓은 마음으로. 84년생 연인으로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
- 소** 37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4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61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73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85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
- 호랑이** 38년생 숨은 기술력을 발휘하고 재물을 받는 날. 5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하라. 62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74년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 86년생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 토끼** 3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51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3년생 돼지띠와의 거래는 원만하다.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니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다. 8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움직이자.
- 말** 40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 5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온다. 64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76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88년생 바쁜 일로 하루가 즐겁다.
- 뱀** 41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53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5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라. 77년생 명에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89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 양** 42년생 마음은 바쁘고 행동도 바쁘다. 54년생 집 내나 같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이득이 있다. 66년생 내부공사로 스케줄이 넘친다. 78년생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90년생 직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상사가 있다.
- 염소** 4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니 마음먹기 나름. 55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7년생 친절과 비겸함에는 차이가 있다. 79년생 현실에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91년생 약속을 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 원숭이** 44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5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음주와 과식은 신경 써야 할 것. 68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80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92년생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 닭** 45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57년생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 9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들다.
- 개** 46년생 오늘의 부는 부모의 형설지공(陰雪之功)이다. 58년생 뜻밖의 횡재수에 감사하라. 7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82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피라. 94년생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
- 돼지** 47년생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5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71년생 머피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83년생 이성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좀 더 잡아야 하는 날. 95년생 사소한 일이 모이면 큰일이 된다.

김상회의四季 천도재의 공덕

중국이나 한국은 조상에 대한 제의(祭儀)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다. 세계 각국마다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제사와 비슷한 전통이 있었지만 전통적 유교국가인 중국이나 한국에 비한다면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독교 전통인 서양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는 하나, 음식을 차리고 제문을 읽고 흠하는 의식이 아니라 모두 모여서 기도와 묵상의 정도임을 볼 때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동북아의 대표적 불교 문화권이었던 중국과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함께 공존하기에 4대조 정도에 대하여 제사를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연 선망조상 친족연속까지 재(齋)를 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살피하는 목련경(目蓮經)까지 있는 것을 보면, 평소애 잘 챙기지 못했던 조상 영가님은 물론 늘 마음에 남아 있는 수자령 영가와 먼 친척 영가까지 형편껏 천도해 드리고자 함이니 일년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낸다면 그 역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천도재의 공덕에 대해 지장경에서는 28가지의 공덕이 있다 하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목련경에도 백중재이자 우란분재의 복력이 나와 있다. 천도재는 여러 의미 있는 일들 중 하나로 첫째는 구제불사(救濟佛事)요, 둘째는 정업불사(淨業佛事) 셋째는 작복불사(作福佛事) 넷째는 보은불사(報恩佛事)라는 것이다. 즉 조상을 비롯한 영가들이 설령 선처가 아닌 곳에 윤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성껏 재를 올리고 기도해 드림으로 시공을 넘어 영가를 구제하는 것이니 좋은 일이다. 재를 올리는 후손이나 인연 있는 이들은 복을 짓게 되고 더불어 조상님께 또는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이니, 재를 드려드리는 것으로 동시에 네 가지 수승한 공덕을 짓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린다**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9		7	
	4		9	3	
3		5		8	6
	9				1
	7	8			3
2		1			8
			5	6	2
				4	1
			2		5

4			8	1	
			2	4	8
				6	5
7	4			5	6
	1				9
3		9	6		8
	6		4		
		3		2	9
1			5	8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8	4	9	2	7	9	1	6
9	2	6	1	4	8	2	3
2	1	2	6	9	9	4	8
2	8	9	4	6	2	1	9
6	2	2	9	1	9	8	4
4	9	1	8	2	2	2	6
1	6	2	9	8	4	9	2
9	9	8	2	2	6	2	4
2	2	4	4	9	1	6	9

6	2	2	8	9	9	4	2
9	4	1	6	2	2	2	8
8	2	9	2	1	4	2	9
1	8	4	2	1	9	6	2
9	6	2	4	8	2	9	1
2	2	9	9	6	1	8	4
4	9	2	9	2	6	1	2
2	1	8	2	4	2	9	6
2	9	6	1	9	8	2	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